

캘리그래피 : 손보영 카타리나 (덕계성당)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제 1 독서 스바니아 예언서 3,14~18ㄱ

화 답 송 이사 12,2~3.4나ㄷㄹ.5~6 (© 6)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후렴)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1.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2.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3.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 2 독서 필리피서 4,4~7

복음 환호송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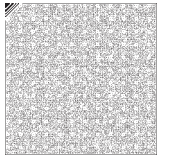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 음 루카 3,10~18

영성체송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유에 태어나 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직도 내 주위를 둘러싼 근심거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웬지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싹 해결될 것 같기도 해서 묘한 기대감을 붙잡고 '성탄이 며칠이나 남았나~'하며 달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 마음을 아셨는지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줍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묘한 기대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길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루카 3, 11) 복음 속의 군중이 묻고 있고, 사실 나도 묻고 싶습니다. 이에 요한은 자신이 가진 두 별의 옷과 음식을 못 가진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합니다. 옷과 음식은 생필품과 생계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첫 번째 마음은 가난한 이웃이 이 추운 날씨에

생계로 곤란하지 않도록 마음으로 돌보고, 가진 것을 나누는 실천일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주님께 봉헌된 사람임을 떠올리고 내 모든 것이 이미 주님의 소유임을 받아들인다면, 나눔을 실천하더라도 아직 반이나 남겨주셨고, 오히려 복음 실천의 기회를 주심에 대한 감사가 남을 것입니다. 분명 나누는 만큼 베들레헴 구유에 가까웠다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세리와 군사들도 구원의 길을 찾아 요한에게 묻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루카 3,13,14) 당시 세리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사회 안에서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으면서 자신들의 몫을 더 거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들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받은 공권력을 자신들의 봉급 이상

의 생활에 대한 욕심으로 남용해왔던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살펴볼 두 번째 마음은, 비단 금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이익이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진실을 감추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은 것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의 것을 되돌려주라는 뜻이 숨어있습니다.

오늘은 자선 주일입니다. 미사를 드리면서 자신을 주님께 새롭게 봉헌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를 쓰시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올해 내가 행한 자선은 훗날 천상잔치에서 내가 입을 예복의 구멍을 기워주고, 반짝이는 금빛 단추가 되어 줄 것입니다.

김기영

안드레아 신부

부산성모병원 행정부원장



나눔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기에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 주고

따뜻하게 지켜보아 주며

마음을 알아주는 위로의 말과

내게 있는 시간을 나누어 함께 차 한 잔을...

모두가 내가 가진 것들입니다

글. 정재분 아가다 동시인(대전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hang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2.17(월)~18(화)

김기영 신부(부산성모병원 행정부원장)

12.19(수)~22(토)

강호성 신부(월평성당 보좌)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 우지민 유스티나

12.19(수) 오늘의 가톨릭 뉴스

- Arca(아르카) 청년성서모임 "찬양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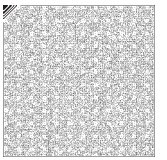
출연 : 임영천 헬레나 리포터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12.21(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

우린 찬양사도 출연 : 박소정 알비나



12월.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얼마 전 1월 달력을 넘긴 것 같더니 달랑 한 장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절반 이상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흘러 버렸습니다.

연말은 바쁩니다. 송년회다 동창회다 가야 할 곳이 많아집니다. 술자리도 빈번해집니다. 국내외 10대 뉴스 뽑는데 투표도 해야 하고 올해 가장 많이 불린 노래, 제일 인기 있었던 드라마 등을 선정하는 TV 프로그램도 봐야 합니다.

다들 “경제가 안 좋다”고 아우성이고 ‘부산 주택시장 붕괴 우려’ 등 우울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늦둥이 딸 놔두고 어떡할라고 담배도 안 끊냐?”, “남들처럼 땅 사둔 것, 재산도 많지 않으면서 술은 왜 그리 퍼마시냐”는 바가지가 웬만큼 폭격처럼 쏟아집니다. 간헐적 저항을 해보지만 건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바쁘고 고단합니다. 그러다 문득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게 정지된 순간 같은 것이 옵니다. “벌써 1년이 다 지났네. 참, 허망하다”는 느낌이 스멀스멀 마음속을 배회합니다. 연말의 회한쯤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대림절’이지요. 세상은 ‘끝’인데 교회는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신앙의 시간은 서로 다른 가 봅시다. 세속의 나라와 하느님의 나라가 다르듯이.

연말을 앞둔 요즘의 제겐 ‘끝과 시작’이 뒤섞여 있습니다. 제 올해의 ‘끝’은 어수선하고 우울하고 처량합니다. 마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마구간’과 비슷합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얘기합니다.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넣

혔다.”(루카 2.7)
‘새 시작’의 중심엔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 연말, 제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을 모실 말구유가 있을까요? 제 끝의 시간이 새로운 시작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어수선하고 우울하고 처량하더라도 ‘말구유’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주보 화답송에 있었던 시편 구절이 떠오릅니다. “저희 날 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저희 힘이신 주님...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이시옵니다”. 저와 저처럼 연말을 맞을 모든 이들의 말구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 박 주 영 켈레스티노
남천성당, 언론인 park21@chosun.com

한처음
교구가
시작될 때

교구설정 40주년 신앙대회와 이갑수 주교 이임

1997년 4월 20일 대회장을 김계춘 신부
로 하여 교구 40주년 행사 발단식을 가졌다. 7월 6일 본당 성가대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교구청강당), 9월 7일 젊은이 축제 한마당(KBS홀), 9월 9일 음악제(부산문화회관 대강당), 9월 27일 ‘부산교구 어제와 오늘’이라는 심포지엄(부산가톨릭대학교)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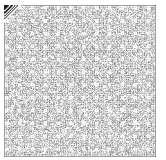
10월 12일 사직야구장에서 교구설정 40주년 신앙대회를 ‘새 하늘 새 땅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교구장 이갑수 주교와 교황대사 요한 바티스타 모란디니 대주교, 최재선 주교 등 12,000명의 신자가 참석하였다. 이 주교는 “교구 설정 40주년을 맞는 이 기회에 교구민 개개인이 교회의 영신적 힘을 발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복음 선포를 위한 최우선적인 사랑의 실천에 적극 앞장서, 다가오는 2000년 ‘새 하늘 새 땅을 위하여’

온 누리에 그리스도 사랑을 불을 놓자”고 역설했다.

1998년 11월 14일 정명조 주교가 부산교구 부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 교구장으로 28년 동안 교구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갑수 주교는 1999년 8월 21일 남천성당에서 감사미사를 봉헌하면서 교구장직에서 이임하였다.

1987년 말 229,102명에 달했던 부산교구의 신자수는 1998년 346,049명으로 116,947명이 증가하였지만, 신자증가율은 감소되었다. 이 기간 본당수도 62개 본당에서 29개 본당이 증가하여 91개 본당이 되었다. 본당수가 늘어난 것은 신자수의 증가요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기간 새 사제가 110여 명이나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본당수가 증가하고 사제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자증가율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은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복음 선교의 새로운 전환을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다.

▣ 한건 신부(순교성지사목) jubo@catb.kr



“엄마, 당신을 울리고 싶었던 게 아니었는데 내가 내일 이 시간에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살아가세요. 계속 살아가세요.”

권의 ‘보헤미안 랩소디’ 가사를 들으면, 마치 민서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살 민서에게 남은 시간은 2년입니다. 올여름 방광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 걷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눈에 초점이 없어졌습니다. 응급실에 가보니 머리에 종양이 자라고 있었고 이미 커질 대로 커져서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철었던 시절 13살 연하 남편을 만났을 때 같이 찾아온 딸이었습니다. 하느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 믿었기

에 저는 엄마가 되었지만 남편은 아바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아이에 대한 애정도 없어 결국 민서는 아با 없이 커야 했습니다. 예쁜 딸을 돌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저에게는 먹고사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아침 일찍 민서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식당에서 일했고, 집에 돌아오면 고작 3시간 정도 민서와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하루 2~3번밖에 분유를 먹이지 못한 것도, 여행 한 번, 그 흔한 놀이공원 한 번 못 가본 것도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때 분유 한 번 배부르게 먹여 키웠다면 종양이 생기지 않았을 것만 같습니다.

점점 야위어 가는 아이와 언젠가는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병원비가 걱정입니다. 간병하느라 식당도 그만두었는데 당장 어

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맛있는 과자라도 마음 편하게 사 주고 싶은데, 단돈 천원을 쓰는 것도 사치로 느껴질 뿐입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는 걸까요. 민서는 울지 않습니다. 2달이 다 되어가는 병원생활이 지치고 힘들 텐데도 짜증한 번 안 내고 잘 놀고 잘 웃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디오에서 계속 ‘보헤미안 랩소디’ 노래가 들려옵니다.

“난 가야만 해요. 엄마. 죽고 싶지 않아요. 가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라곤 해요.”

■ 사회사목국(051-516-0815)

도움 주실 분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기도 어렵는데 사랑까지 하라니 힘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와 ‘용서하기’ 어느 것이 쉽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다들 사랑하기가 쉽다고 말하더군요. 사랑은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반면, 용서는 내가 싫어하고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용서보다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아니라, 내가 해를 가한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단번에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평가가 최종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전제합니다. 그 사람의 개별 행

위는 잘못되었지만 그 사람은 언젠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가 다른 부분에서는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의 최종 심판을 유보하고 기다려 주는 것이지요. 내가 미워하는 원수 안에 우리가 모르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태도, 자기 비움의 태도가 여기에 요구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 바라봤을 때, 그리고 지금 하느님을 저버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할 마음이 저절로 드실까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시고 하느님의 영으로 가득 차셨기에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마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 권순호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albkw93@hotmail.com



교구 소식

청소년 봉사 활동, '똑똑! 안녕하신가요?'



단한 스트레칭, 마지막으로 집 안 곳곳 청소 및 정비 등의 활동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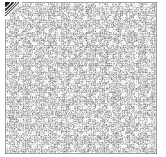
'똑똑! 안녕하신가요?' 는 주기적으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찾아 안부를 여쭙는

(재)부산가톨릭청소년회(상임이사: 김대성 신부) 소속 학생들은 지난 12월 2일(일) '똑똑! 안녕하십니까?' 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학생들은 홀몸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된 콘센트 교체, 건강 체크를 위한 간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이다. 봉사 활동에 참가한 안재원 로사(하단성당) 양은 "우리가 해드렸던 것보다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시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봉사 문의 : 051-629-8784

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사랑 나눔



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지도: 김현일 신부, 회장: 최경락 빅토리아노)는 제26회 회원 정기전 사진 판매 수익금 전액과 기부금(쌀 10kg 100포대, 생활지원금)을 지난 12월 8일(토) 아미성당에 전달했다.



메리놀병원(병원장: 손창목 가브리엘)은 최근 신장이식 700례 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고, 이를 기념하고 설명하는 심포지엄을 지난 12월 7일(금) 조선 웨스턴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병원장 및 의료원장 축사, 신장이식팀 소개, 신장이식 700례 관련 연구 및 통계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메리놀병원 신장이식팀은 지난 1990년 8월 첫 신장이식 이후로 현재까지 총 700례의 신장이식을 시행했으며, 국내 병원 중 최고 성적에 달하는 환자 및 이식 신장 생존율의 성과를 내고 있다.



12월 3일(월) 연양성당 / 울산대리구 내 여성제단체 및 간부 108명 참석



12월 9일(일) 푸른나무 교육관 / 부산선택(지도: 김대성 신부) 주관
내용: 주제별 나눔, 토크 콘서트, 감사미사 봉헌, 식사 나눔

삼계성당, 예비신자 성지순례



11월 25일(일) 교구청, 남천성당, 수영 장대골 등
주임: 이성주 신부, 회장: 윤종구 요셉

봉래성당, 청년성가대 창단 25주년 기념음악회



11월 24일(토)
주임: 황지원 신부, 회장: 허정 루도비코

동향성당, 평화의 모후 Pr. 3,000차 주회



12월 9일(일)
주임: 최성철 신부, 단장: 전해주 카타리나

2018년 부산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 일시 : 12.28(금) 10:00 ■ 장소 : 주교좌 남천성당 ■ 주례 : 손삼석 주교

* 서품식을 위한 9일기도 : 12.19(수)~27(목)

사제들을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P.91)
후 주모경을 바칩니다.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박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교 구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

· 12.17(월) 10:00(목주기도), 10:30(미사)
· 교구청 2층 성당 / 문의 : 629-8760~2(성소국)

예신 피정(1차, 2차, 3차)

1차(초6) 1.7(월) 14:00~8(화) 13:00
2차(중1) 1.8(화) 14:00~9(수) 13:00
3차(중2~고1) 1.14(월) 14:00~15(화) 13:00
신청마감 : 12.31(월) / 본당별 접수
대상 : 차수별 대상 확인 / 회비 : 3만 5천원(입금 : 부산 041-01-027178-1 천주교부산교구) / 문의 : 629-8760~2(성소국)

전산홍보국 직원(홈페이지 담당) 구함

모집분야 : 홈페이지 담당(웹디자인, 웹마스터, 콘텐츠 개발) 1명 / 마감 : 12.31(월)
제출서류 : 이력서, 본당 주임신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 접수 : hongbo@catb.kr / 문의 : 629-8752(전산홍보국)

본 당

서동성당 사무장 구함

자격 : 회계, PC능숙 / 문의 : 525-3744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추천서

남천성당 지휘자, 반주자 구함

주일 09:00 미사 / 문의 : 623-4528(사무실)

기관·제 단체·위원회

정하상바로영성관 대립절 피정

[무료하루피정] 12.18(화) 10:00~16:00
[2박3일피정] 12.21(금) 15:00~23(일) 중식 후
회비 : 10만원 / 문의 : (055)383-3101

시각장애인선교회 후원회 미사

· 12.17(월) 12:00 · 선교회 3층 성전
주례 : 이요한 신부 / 문의 : 464-3909

해양사목 월미사

· 12.17(월) 14:00 · 가톨릭센터 3층
주례 : 이균태 신부 / 문의 : 464-2707

노동사목 바자율미사(후원미사)

· 12.21(금) 19:00 / 문의 : 441-6403
· 노동사목센터(사상성당 옆)

교구평형 본당순례 확인서 접수

1차 접수마감 : 12.31(월) / 문의 : 622-5588
주교님 인증서 수여식 : 2.10(일) 15:00 남천성당

오륜대순교자성지 후원회 미사 및 특강

· 12.20(목)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주제 : 믿음의 삶 / 초청강연 : 석찬귀 신부 / 문의 : 515-0030

오륜대순교자성지 새 신부(7명) 첫미사

· 1.2(수)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 / 문의 : 515-0030 / 미사 후 새 신부 안수 있음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은이 기도회
- 12.17(월) 19:30 전포성당
- 12.19(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수요치유기도회
- 12.19(수) 11:00~16:00 중식 제공, 버스 운행합니다.
- 금요철야기도회(캐롤의 밤)
- 12.21(금) 23:00~22(토) 04:00

부산ME 소개모임

울산 : 1.6(일) 15:00 복산성당
부산 : 1.7(월) 20:00 남천성당
364차 ME주말 : 1.18(금)~20(일)
사랑방 ME 소개모임 : 수시 / 문의 : 010-5875-4767
010-4872-5051(울산), www.mekorea.or.kr/bs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12.18(화) 14:00 · 가야성당
성모님께 봉헌식과 성체강복 및 안수
지도 : 윤명기 신부 / 문의 : 010-8879-2376

부산 미바회 후원회 미사

· 12.21(금) 10:00 / 세계오지선교회차량지원
· 문현성당 / 문의 : 010-9312-4228(회장)

가톨릭음악교육원 제28회 겨울음악학교

· 1.24(목)~26(토) ·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주제 : 화답송 창법 및 전례 특송곡
과목 : 발성법, 전례오르간, 그레고리오성가, 합창지휘법, 전례합창, 전례특강
대상 : 성가대 및 전례봉사자 / 신청 : 1.17(목)까지
수강료 : 21만원 (마감 이후 22만원) / 문의 : 517-8241~2, www.bcmusic.or.kr/mec

전례꽃꽂이연구회 미리보는 전례꽃 및 월미사

성탄 대축일 관계로 월미사, 월례회 없습니다
문의 : 010-4554-1173, 010-2556-6380

부산가톨릭대학교 계약직원 구함

근무 : 1.1(화)부터 14:00~22:00 학생생활교육관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접수방법 : 메일 (sombi@cup.ac.kr) 또는 우편접수
문의 : 510-0851(부산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부산가톨릭대학교 사무처)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2004. 12. 21. 이갑수(가브리엘) 주교님
1961. 12. 22. 김명제(베드로) 신부님

혼인미사 예식 및 예약 안내

금, 토, 일, 공휴일 : 11시, 13시, 15시, 17시
문의 및 예약 : 051.441.3500 (수~일)
* 2018년 성전봉헌기념 특가 예약 중 *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2018 말씀일기 성경통독 인증서 및 선물 접수 안내

- 대상 : 「2018 말씀일기」로 성경통독을 완료하신 분
- 접수 : 1.2(수)~2.28(목) 본당 사무실 ('감사기도'를 작성한 '말씀일기' 제출)
- 선물배송 : 5월 초순 본당

<2019 말씀일기> 발간

가격 : 3,000원
문의 : 본당 사무실
선교사목록 629-8720~2

(주)씨피여행사

1. 12/7 오사카 3일 순례(안창호 신부)
2. 1/15 서유럽 성모성지 13일 435만원
3. 2/11 스페인,플루탈 일주 12일 330만원
- 네이비에 '씨피여행사' 일정표 검색
247-5858, 010-3837-6434 부산출발

경찰청 지정 전문학원강사 책임 지도
도로연수
전문강사 : 김 정 근 (바실리오)
010-6555-8655
도로연수는
나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성형수술, 레이저수술, 피부과 진료 오두종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 오두종(오한)
805-0200
카톡상담 ID : 오두종성형외과
서면 주디스테하 맞은편 우리은행 5층

바름내과의원
소화기/간질환, 위/대장내시경, 초음파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건강보험공단 지정검진기관
내과전문의 2명, 문재현, 박기태(베드로)
지하철역 온천장역 1번 출구 150m
SK허브빌딩 3층 **558-5608**

50년 전통 명신당

목주반지, 귀금속 예물도매 전문
반광목(바로) 김영란(제노베파)
646-7885
010-3599-7885
부산은행 범일점 맞은편

임플란트, 틀니, 심미치료
뉴욕플란트치과
원장. 송 현 열 (가브리엘)
미국 뉴욕치대 유학
634-2828
지하철 1호선 범일역 10번 출구 바로 앞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

정 경 우 (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칼 2층
744-8181 www.bmu.co.kr
상담 010-5616-8600

부산 가톨릭 여행사
1. 나바위성지&선유도여행 당일 - 74,000원
부산역 출발(매일 5명 이상 출발)
2. 나가사키성지순례 2박3일 - 350,000원
카멜리아왕복(매일16명이상 출발)
이용태 (안드레아)
0505)505-5001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는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064)758-6476
010-4566-6476

이상열
마취 통증의학과 의원
허리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목·어깨통증(오십견), 손·발 저림 및 시력
구서전철역 앞 동산약국 2층
원장/전문 의 상 열(베드로)
516-0888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용도 : 사무실 6층 (15평, 20평, 35평, 51평)

가톨릭센터 직원 구함

대상 : 기획팀 (문화공연 기획, 센터운영)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가족관계증명서, 교적사본 / 마감 : 1.7(월) 17:00, 면접 개별통지
문의 : 462-1870(가톨릭센터 행정실)

교육·모집·기타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모임

· 12.17(월) 10:30 · 가톨릭센터 강의실 302호 사랑방
문의 : 010-3334-8300(한기철 신부)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 기도와 미사

· 12.18(화) 14:00 · 서면성당
교리강의, 미사 전 후 교해성사
주례 : 구속주회 신부 / 문의 : 010-7132-6379

밀양가르멜수녀원 후원회 미사

· 12.20(목) 11:00 · 남천성당 대성당
주례 : 이흥기 몬사놀 / 문의 : (055)353-6597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12.21(금) 10:00 · 사직대건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엄마와 딸이 함께 만드는 마음 공간

· 12.29(토) 14:00~30(일) 14:00 · 양정동 성모
여고 내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원
대상 : 20세 이상 딸과 어머니 (선착순 10쌍)
회비 : 8만원 / 문의 : 010-2430-7816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청년 MSC 송년피정

· 12.30(일) 10:00~17:00 · 본원
대상 : 20세~45세 이하 미혼남녀 / 피정비 : 없음
주제 : 비움과 채움 / 문의 : 010-4270-3103

새해 해맞이 새 예루살렘 밤샘 기도회

· 12.31(월) 22:00~1.1(화) 06:00 · 새 예루살렘
강사 : 왕영수 신부, 김태광 신부
사전 전화 신청(동행을 위한 비포 발급 위해)
문의 : (052)239-1249, 010-5488-1239
(전례 침묵 피정 : 12.22(토)~25(화))

티없으신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첫모임 : 1.14(월) 09:30 마리아피정센터
대상 : 봉헌생활을 원하는 58세 이하 신자
준비물 : 교적, 가족관계증명서, 증명사진
문의 : 010-4622-4819(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뜻똥포교베네딕도회 청년 성탄전례피정

· 12.24(월) 16:00~25(화) · 대구수녀원
대상 : 35세 이하 청년 / 회비 : 2만원
문의 : 010-8519-3431

제주 성 이시돌 자연피정

· 12.30~1.2, 1.11~13, 1.16~18, 1.21~24, 1.28~30,
2.10~12 / 대상 : 개인, 가족, 본당단체 등
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 문의 : (064)796-9181

예수성심시녀회 비움과 채움을 위한 송년피정

· 12.31(월)~1.1(화) · 대구 앓음분원
대상 : 만 35세 미만 미혼남녀
문의 : 010-9286-2247

사랑의씨든수녀회 젊은이 송년피정

· 12.31(월) 18:30~1.1(화) 13:00
· 서울 씨든 영성센터 / 참가비 : 2만원
대상 : 미혼 남녀 / 문의 : (02)744-9825

최봉도 신부 희망기도(내적치유 피정)

· 1.14(월)~16(수), 2.22(금)~24(일), 3.15(금)~
17(일), 4.5(금)~7(일), 5.17(금)~19(일),
6.14(금)~16(일) 파주 민족화해센터
피정비 : 17만원 / 문의 : 010-6254-0057

2019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만 18세 이상, 학
력제한 없음) / 내용 : 성서, 교의, 전례 등 26과목
원서접수 : 11.12(월)~2.13(수), 우편 신청 가능
문의 : (02)745-8339,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제3차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 하는 치유피정

· 3.2(토)~3(일) · 의왕시 아론의 집
주제 :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28)
강사 : 정건석 신부, 유용덕 신부, 두현자 회장
문의 : 010-8517-2306, 010-6366-9356(주최)
: 미국 중남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하찬사)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위한 무료특강〉

맨드셀로 캐롤 연주하기 수강료 : 무료(재료비 없음)
12/19(수) 18:30-20:00 대상 : 누구나(선착순 각 15명)

수채화로 성탄카드 만들기 문 의 : 510-0951~3,
12/20(목) 18:30-20:30 edu.cup.ac.kr

입학처 : 051-510-0701~4 / ipsi.cup.ac.kr

오순절평화하마을 미술치료 전시회

전시 : 12/19(수)~28(금)
메리놀병원 2층 열린문화공간 '창'갤러리

내용 : 정신장애인 인식개선과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미술치료 작품 전시회

문의 : (055)352-4241

가톨릭센터 복음 문화 나눔
행복한 세상

가톨릭센터 사진교실 수료전
"감성의 빛을 찾아서..."

전시/ 12.22(목)~28(금) 10:00~18:00 대청갤러리
내용/ 사진교실 초급, 중급 수료전

문의 : 462-1870 / www.bcccenter.or.kr

'욱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국가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

수맥과 건강

불면증, 만성피로,
혈액순환장애, 정신집중 안됨

치료해도 효과를 못보는분, 문의환영

사무실 517-3233
서순복(별바) 010-3862-6834

동의료원 무료관절센터

무릎 관절염, 무릎 인공관절,
관절 내시경, 스포츠 외상
정형외과 송무호(토마스)박사

미국 피츠버그 대학병원 전임 의사
영국 옥스포드 대학병원 연수

관절센터 예약 850-8747

성가병원

손·발·관절 중점 진료
김 우 식 병원장 (알렉산델)
정형외과/수부외과 전문의

내과(위, 대장 내시경)·공안검진·선원검진
지하철 1호선 범일역 9번 출구

645-9771~5

**해충 방역 소독
악취완전제거**

허정희(토마스)

010-9689-8119
(NAVER : 바이벽스)

산티아고 순례길 42일
루르드/파티마 성지 순례일정
19년 4/5 (439만원, 인솔자 동행)

가톨릭트래블
www.catravel.co.kr
070-4086-0207

내일N성형외과

최수중(루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눈, 코, 유폴, 가슴, 지방성형, 보톡스, 필러, 레이저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9(백련병원 2층) / 서구청 옆

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종의료기관
임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 (베드로)

다솜복지마을협동조합 재가센터

* 요양보호사모집 : 시급 10,500원
* 65세이상 어르신 중 몸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
* 방문요양/장기요양등급신청대행

최용호(라우렌시오)
010-7710-3006

부산최초제조사 KGMF(우수제조)인증업체
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무료제작, 일반90%혜택

독일보청기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석 수리
김 무 나 (글라라) * 교유 특별 할인 *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도 4, 9번 출구(3층, 빨간색 간판)